

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서영찬(프란치스코) 267-471-9048 • 연령회장: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Vacation until Jan. 26)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 오늘의 전례 ≫

입당 성가 : 141 죽음을 이긴

제 1독서 : 사도행전 1,1-11

화 답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17-2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오 28,16-20

봉헌 성가: 342 제물 드리니

332 봉헌

영성체송 :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성체 성가: 174 사랑의 신비

164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 성가: 137 부활하신 주 예수

◈ 미사 지향 ◈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박순권(카타리나)	가족		
	김정용(레안데르)	가족들		
연	손정연(데레사) 박경남(미카엘라) 이유님(헬레나)	권율리아나		
	송정일(아만시오)			
	김보필(요나단) 이규삼	김도호		
	이창성(요셉) 김경희(에우제니아)	정아가다		
	이준영(멜키올)	가족	건강 회복	
생	김수동(요셉)	정아가다	주님 은총 축복	
	김두명(사도요한) 이장형(요아킴)	김유미	구순 축하 감사	
		백영기(안드레아) 박순권(카타리나) 김정용(레안테르) 손정연(테레사) 박경남(미카엘라) 이유님(헬레나) 송정일(아만시오) 김보필(요나단) 이규삼 이창성(요셉) 김경희(에우제니아) 이준영(멜키올) 김수동(요셉) 김두명(사도요한)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박순권(카타리나) 가족 김정용(레안테르) 가족들 손정연(데레사) 박경남(미카엘라) 이유님(헬레나) 송정일(아만시오) 김보필(요나단) 이규삼 이창성(요셉) 김경희(에우제니아) 정아가다 이준영(멜키올) 가족 김수동(요셉) 정아가다	



생명의 말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몇 년 전 동생 신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 아와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 다. 순례 초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 람들이 함께 길을 걷는데, 보름 정도가 지나 면 걷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합니 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혼자서 끝도 없는 들 판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걸은 적이 있 었답니다. 그날 동생은 아침부터 뜨거운 햇 볕 아래서 묵주 기도를 하면서 걷다가 오후 쯤 시원한 그늘이 있는 숲속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숲속에서 오래전 돌아가 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만 남에 대해서 동생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 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만났다는 이 야기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버지

와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이 떠올 라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가 믿는 부활의 체험이 바 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 니다.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 한 생명,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전부 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을 여의는 것을 흔 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에 비유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깊은 구 렁속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 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 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이 큰 슬픔을 이겨내 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완성, 마침표를 찍 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세상과 천국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 어주고 서로 통교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흗날에 부 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 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승천입 니다

1980년부터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 로 정해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홍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거룩 한 사명을 지닙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 하며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홍보 하고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 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 겠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워회 부위원장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5월 24일	빈첸시오 : 홍준기 소피아 : 김소영 수산나 : 박수산나		
	요안나 : 박신경 조유미 양창숙 조경숙 김현진 정선화 홍순미 이지은		
	제시카 : 염도영 이인숙		
5월 25일	그레고리오 : 김한상 메 들린 : 이세희 막달레나소피아바자 : 권은령		
5월 26일	마리안나 : 윤소영 이희남 남원희 김희서 박지연		
5월 28일	젤마나 : 소미숙		
5월 29일	세파스찬 : 김준기 데오도시아 : 이정옥 보나 : 이재원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330.-

송요한(4-6) 이현숙(4-6)

이세옥(5) Lawrence Wentz (5)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필라델피아 대주교님 Nelson J. Perez 공지 사항입니다

필라델피아 교구 내 모든 성당은 평일, 주일 모든 미사는 추후 다시 공지가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성당에서 미사는 없지만 매 주일 오전 11시 live streaming broad cast (라이브 방송)으로 대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필라 교구 웹사이트 http://archphila.org covid 19/나 Archbishop Perez's Fac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청하는 기도와 묵주 기도를 각자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분들의 주소 확인 및 Update 안내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역원들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새로 바뀌신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고 기타구역은 성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모으기 안내

한아름과 식당 영수증은 성당에 미사가 없는 관계로 당분간 날짜에 관계없이 모아서 성당 입구에 있는 영수증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물건 구입시 성당 번호 "89020"이나 "성당"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본가, 서라벌, 토담골, 뮤타, 코리아 가든, 코리안 바베큐, 상하이, 코코카페, 종가집, 고향산천, 5가 파리 제과, 고기 BBQ(옛한촌), 수라, 소 코리안 그릴(옛힐링포차) 꽁트 헤어 살롱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위의 식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 곳은 영수증 수익금을 주지 않습니다